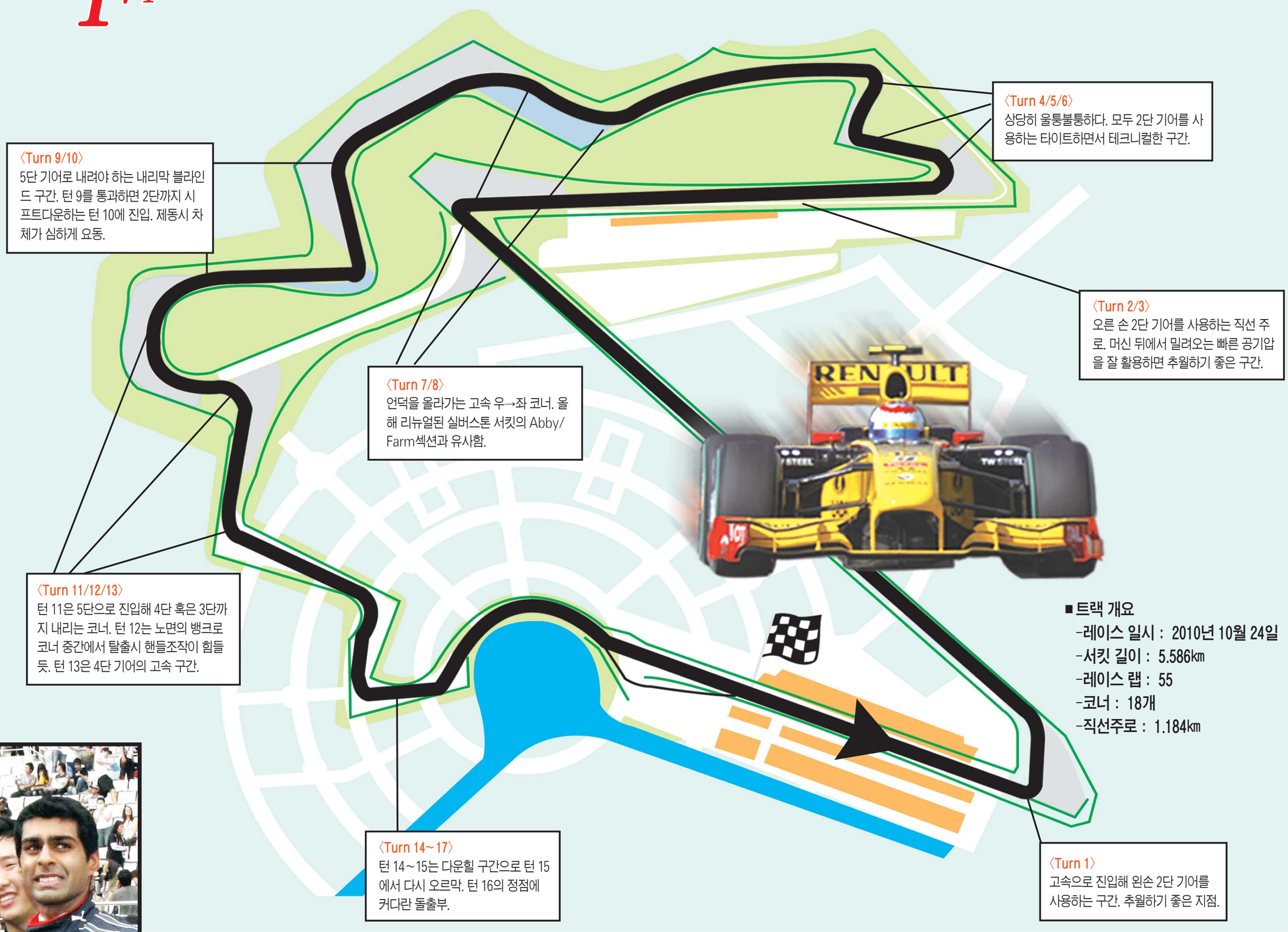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영암 F1 D-1

미리 달려 본 카룬 찬독의 영암 서킷 가이드



'데모 런' 카룬 찬독

직선주로 강점 '레드불' 우승 유력

레드불 레이싱의 '원투 펀치' 마크 웨버(34·호주)와 세바스티안 베텔(23·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F1코리아그랑프리의 유력한 초대 챔피언 후보로 꼽혔다.

지난달 F1 드라이버 가운데 처음으로 영암 서킷을 시험 주행(데모 런)한 카룬 찬독(26· 인도·HRT)은 19일(한국시간) 데일리 텔레그라프와의 인터뷰에서 "레드불은 어디에서나 빨랐다. 특히 3개의 직선주로에서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암 서킷은) 접지력(grip)이 약해 굉장히 미끄러울 것"이라며 "페라리와 맥라렌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19라운드 가운데 16라운드를 소화한 현재 레드불의 웨버가 220점으로 올 시즌 F1에 출전하고 있는 24명의 드라이버 가운데 최고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 뒤를 페라리의 페르난도 알론소(29·스페인)와 레드불의 베텔이 나란히 206점으로 추격 중이다. 맥라렌의 루이스 해밀턴(25)과 젠슨 버튼(30·이상 영국)은 각각 192점과 189점으로 뒤따르고 있다.

이들 5명이 올 시즌 F1의 강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F1코리아GP의 첫 우승도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찬독은 로이터와의 또 다른 인터뷰에선 "만일 레드불 선수들이 예선에서 1, 2위를 차지한다면 그들이 초반의 굉장히 긴 직선주로에서 자신들의 이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드라이버의)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알론소나 해밀턴, 버튼이 우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국의 유명도박업체인 윌리엄 힐은 베텔의 우승배당률을 2대1로 책정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았다. 그 뒤를 알론소와 웨버가 각각 11대4와 10대3으로 추격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